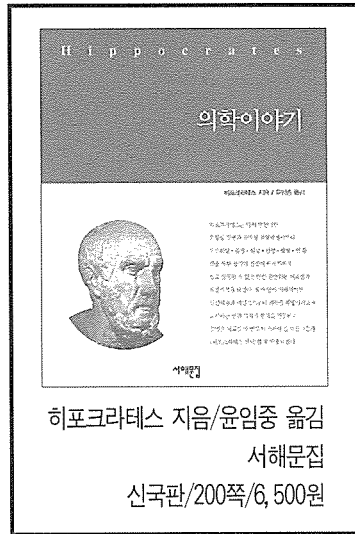


의학이야기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예비의사들은 모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읽을 기회를 갖는다. 그리고 인술을 베푸는 모든 의사들은 일생동안 의사로서 이 선서의 정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며 열과 정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박애정신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삶을 영위해 나간다.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소아시아 연안부근 코스섬에서 출생하여(B. C. 460? ~375?) 아버지에게 의학을 배웠고 또 크안도사의학교에서 의학을 배웠다. 여러 곳의 철학자, 의학자와 교제하며

지식과 견문을 넓히고 또 경험을 쌓아, 의학의 각 분야에 걸쳐 탁월한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의학자로서 숭고한 인격을 지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히포크라테스는 당시 지배적이던 신전의술과 미신으로부터 의학을 해방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후세에 남겼다. 「의학이야기」는 첫머리에 선서를 소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나의 능력과 판단을 다하여 이 선서와 규정을 지킬 것을 약속하노라. 나에게 이 기술을 준 사람을 부모처럼 생각하여 생계를 함께 하고, 이분에게 금전이 필요하면 나의 금전을 나누어 드리고, 이분의 제자들을 나의 형제처럼 대하리라. 만일 그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보수와 계약서를 받지 않고 가르쳐주리라. 나의 자식들과 내 스승의 자녀들, 의사의 법도에 따라 서약을 한 학생들에게 나는 의사의 마음가짐과 강의, 그리고 그 외 모든것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이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능력과 판단력을 다하여 식이요법을 실시할 것이다. 이는 환자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며 가해나 부정을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노라. 치사약은 누구의 부탁을 받더라도 투여하지 않을 것이며 그와 같은 조연도 하지 않으리라. 부인에게 낙태용 기구를 제공하지 않고 내 생애를 순결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나의 기술을 실시하리라. 치료할 때 보고 들은 것, 치료에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침묵을 지키리라.'

이 책은 이러한 선서를 비롯하여 의사의 마음가짐, 공기·물·장소, 신성병, 고대 의술 및 인간의 자연적 본성과 유행성 질병 그리고 기후와 질병의 관

계에 이어 해설을 첨가하고 있다. 의사의 마음가짐에서는 환자의 질병이 악화되느냐, 좋아지느냐는 어디까지나 의사의 치료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만일 어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경험부족 때문에 해매고 있다면 다른 의사의 도움을 청하여 서로 협의하여 환자의 진상을 알아내어 구제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행동은 의사의 품위 손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의학이 경험의학이었던 것은 그 시대의 여건 때문이었으므로 오늘날의 의학지식과 다소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1천4백년 전 그토록 폭넓은 의학지식을 가졌던 것은 경탄할만한 일이며 오늘날까지 히포크라테스가 의학의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것은 환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성실한 자세로 치료에 임했던 그의 마음가짐과 숭고한 박애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산업의학의 대부로 존경을 받고 있으며 명수필가로 알려져 있는 가톨릭의대 윤임중교수의 정성이 담긴 역서로서 의료인을 비롯하여 일반 독자들에게도 삶의 지표를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⑬

朴澤奎(건국대 이과대 화학과 교수)